

주간기도정보

2024. 1. 30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한교총,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자”

‘기도성령운동, 성경의 권위회복, 전도와 부흥’ 강조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대표회장단이 지난 23일 신년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올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자”고 다짐했다.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를 필두로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김의식 목사(예장 통합), 이철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임석웅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지난 9일 상임회장 회의에서 결의한 데 따라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가 담긴 목회서신을 이번에 발표했다.

한교총 대표회장단은 목회서신에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이 편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표회장단은 “한교총이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힘 있게 전파하고 교회다움을 회복해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최일선에서 있고 그 일을 위해 ‘기도성령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35개 회원 교단 6만 성도가 함께 협력해야 할 핵심과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는 첫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에 힘쓰시다’, 둘째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여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셋째 ‘교회다움을 회복하여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부흥에 힘쓰시다’이다.

대표회장단은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라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교회 안에서 성경의 권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 풍조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안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무엇보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대원칙을 선포했다.

특히 “교회다움을 회복하여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부흥에 힘쓸 것”을 촉구하면서 “한교총은 전 회원 교단과 협력해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 성령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마태복음 17:5)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사도행전 4:31)

하나님, 신년을 맞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려 굳게 결심하며 외치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몸 된 교회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진리가 생명이 되어 나타나는 교회다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경의 권위가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빌기를 다하도록 기도해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회복과 부흥을 주사 한국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으로 행진케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최악 박해국 북한...수용소에 기독교인 7만 명

2024 월드와치리스트 1위 북한, 40만 지하교회 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오픈도어선교회가 최근 세계 기독교 박해순위인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 WWL)에서 북한을 1위로 선정한 가운데,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의 수가 약 7만 명으로 추정됐다.

헨리에타 블리스 오픈도어선교회 영국 대표는 미국의소리(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다른 박해국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라며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공포 속에 살아간다”고 말했다.

특히 블리스 대표는 북한에는 약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선 김정은과 그의 조상 외에 다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완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 단체도 북한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신앙을 유지하다 발각되면 공개처형, 관리소 이송, 노동교화형 등의 박해를 받으며, 성경책 등 기독교 관련 미디어, 물품을 소지해도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온 지하 그루터기 신자, 중국에 나갔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온 신자, 기독교 라디오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는 신자, 소수이지만 기존 신자들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되는 신자 등 약 4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는 북한 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별히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특별히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각종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산간오지로 추방된 기독교인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중단되고 이들이 복권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또한 하루속히 북한이 자신들이 가진 모순을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외쳐야 한다. 그것이 주 안에서, 또한 한민족으로서 하나 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평화한국(대표 허문영)은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돼 있는 김정욱·김국가·최춘길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층 로비에 마련하고 억류 선교사들과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을 공유하기도 했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요한계시록 14:1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44-45)

하나님, 올해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선정된 북한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약 40만 명에 이른다는 소식에 감사와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험한 수용소에 갇힌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의 육체와 마음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약속이 그들의 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10년 넘게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사 이 고난을 통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김정은과 그의 조상을 송배하게 하는 모든 거짓되고 악한 일들이 힘을 잃고 도리어 하나님 아는 빛을 비추사 돌이켜 북한에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찬송케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디지털로 무장한 ‘진짜 요즘 애들’...잘파세대 신앙법은?

복음의 본질 잃지 않고 오프라인 신앙 공동체로 건강하게 이어지도록



유튜브로 새벽예배를 드리고 줌을 통해 해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신앙 고민이 생기면 생성형 AI를 활용해 해답을 얻기도 한다. SNS로 성경 통독 인증을 하며 댄스 챌린지 등을 통해 공동체와 친목을 다진다. ‘잘파(Zalpa)세대’의 신앙 생활 모습이다.

잘파세대란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부터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α)세대까지를 통틀어 말한다. 유년기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해 온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native, 원주민)’로 불릴 만큼 디지털 세계에 친숙하다. 잘파세대의

신앙생활 특징도 이런 특성과 맞닿아 있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청년은 “이렇게나마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다.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며 “대면 예배는 기본이되 일상에서 온라인 예배나 신앙 콘텐츠를 잘 병행한다면 개인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잘파세대들은 신앙 고민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해결한다. 챗GPT를 기반으로 개발된 기독교 AI 챗봇 ‘초원’은 이용자가 고민이나 질문을 올리면 신학적인 대답과 관련 성경 구절, 기도문까지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월 활성 사용자만 4만여 명에 이르며, 한 달에 올라오는 질문만 30만 개다.

SNS는 잘파세대 신앙생활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콘텐츠 제작에도 익숙한 잘파세대들은 ‘댄스 챌린지’ 등을 통해 함께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평소 SNS를 활용해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고은빛 양(17)은 “비기독교인 친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전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어 SNS를 적극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잘파세대 사이에선 IT 기술을 활용한 선교 활동도 활발하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으로 선교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됐다. 한 청년은 온라인 선교 플랫폼을 통해 현지 선교사를 연결받고 화상으로 어린이들의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갑 청년사역연구소 소장은 “잘파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별이 없는 세대”라며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면서도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에서만 머무는 ‘자기만족’이 아니라 오프라인 신앙 공동체로 건강하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사역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한복음 4:23-24)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디모데후서 2:15)

하나님, 디지털에 익숙한 다음세대가 온라인 상에서 여러 방식으로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주변과 열방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습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복음의 본질과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만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다음세대가 자기만족이 아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섬기게 하소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께 드러진 다음세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곳곳에서 올려지게 하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